

News

KB금융 "주주환원 확대"…지주 설립후 첫 분기배당

서울경제

KB금융지주, 지주 설립 이후 첫 분기 배당 실시… 22일 1분기 실적 발표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 결의 예정…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 부응하기 위한 조치
당장 분기 균등 배당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분기 배당 늘려가는 방식 취할 것… 신한지주에 이어 두 번째… 올해 예상 실적 좋은 것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

우리·농협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모두 상향

매일경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19일 기준 예·적금 금리 상향 조정… 우리은행, 0.20~0.30%p 인상… NH농협은행, 0.25~0.40%p 인상
이번 수신금리 인상으로 지난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후 3영업일 만에 5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모두 올라…

금리인상에 중기대출 부담 가중… '2%대 이자' 씨 말랐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대출 금리 가파르게 상승 중…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은행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금리 2.85~5.39%까지 올라…
특히 1년 만기 운영자금이 대부분으로 인상된 금리가 바로 반영돼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정책자금 지원받지 않으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MZ세대 잡아라…시중은행권 전략 상품으로 각축전

e대한경제

카카오뱅크의 MZ세대 겨냥 상품을 통한 시장성 확보 가운데, 시중은행권에서도 MZ세대 맞춤 상품 각축전… 우리은행, MZ마케팅팀 신설해 공략 나서…
NH농협은행, 고객 특화 적금 상품 운영… KB국민은행, 맞춤형 신개념 통장 운영… 비대면 선호와 재미 요소 포함해 새로운 저축 경험 선사하는 점이 특징

한화손보·흥국화재도 車보험료 1.2% 낮춘다…중소형사도 인하 동참

연합인포맥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 내달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1.2% 낮추기로… AXA와 롯데손보는 아직 인하안 확정 못해…
그간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들은 인하 결정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해와… 전체 손보사들은 작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3,981억원 영업이익 내며 4년 만에 흑자 전환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 잇따라…수요 증가 '글쎄'

보험매일

손보사들,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보장 강화…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한도 확대한다고 밝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추가
KB손보, 지난 15일 교통사고 처리보장 특약 보장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현대, DB, 메리츠는 이달부터 처리지원금 한도를 3억 5,000만원으로 상향

미래에셋증권, '거래대금 감소' 해외 네트워크로 뚫는다

에너지경제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과 연계해 하반기 중 국내 투자자들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인도 주식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 선보일 예정
국내 주식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실적 둔화 우려 커지는 가운데 수익 창출 긍정적 영향 기대… 국내 증권사 중 최초… 동사 글로벌 네트워크 바탕으로 수월하게 구축 가능 평가

"이제는 고액자산가 시대"…증권사 WM·PB 서비스 특화 점포 신설 '봇물'

아시아투데이

증권사들, 고액자산가 유치에 총력전…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 축소 등 비대면 채널 확대 기조와 증시 환경 변화에 따른 PB, WM 강화 차원
미래에셋증권, 25일 반포역 인근에 WM 특화 지점 신규 오픈 예정… 유안타증권, 최근 자산가 고객 특화 GWM 센터 신설… 고액자산가들의 직접 및 간접 투자 관심사 높아졌기 때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